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영농철 마늘 수확 현장서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윤성수]

농촌 고령화·인력난 해소 위해 직원 참여 봉사활동

“농업인과 함께하는 공기업 역할 지속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19일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의 한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따르면 정경훈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19일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의 한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농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늘 수확 작업 등에 힘을 보태며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섰다.

ADVERTISEMENT

농가 관계자는 “한창 바쁜 시기에 공사 직원들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경훈 지사장은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며 농촌 활성화와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